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화성밸브(03961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밸브(039610)

정밀 밀폐·완전용접 기술과 폭넓은 공급 기반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는 밸브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07.13 기준)

대표자	장원규, 장성필
설립일자	1987년 4월 24일
상장일자	2000년 3월 14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LPG용기용 밸브, 플랜지볼밸브, 매몰용접형 밸브 등
주요제품	

시세정보(2026.07.13 기준)

현재가(원)	5,14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535
발행주식수	10,410,400주
52주 최고가(원)	11,950
52주 최저가(원)	4,900
외국인지분율	2.86%
주요주주	장원규 외 4인

■ 도시가스용 범용 밸브 기반 위에 인프라용 고사양 제품 확대 추진 중

화성밸브(이하, “동사”)는 나사식·플랜지식·매몰용접형·절연·LPG 용기용 밸브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석유화학, 정유, 발전 및 일반 산업용 배관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약 500종의 밸브를 자체 가공·조립하며, 전국 약 350개 대리점과 도시가스 배관업체, LPG 충전·제조업체, 산업체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주력인 가스·산업용 볼밸브에 화성케이비밸브의 버터플라이밸브와 에이치에스메탈의 비철금속 사업이 보완하는 구조이며, 정유·발전·수소 인프라용 고사양 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노후설비 교체수요를 기반으로 저누설·수소 대응·스마트화가 확산되는 산업용 밸브 시장

목표시장은 도시가스·LPG 배관, 정유·석유화학, 발전 및 일반 산업설비에 적용되는 차단용 볼밸브와 버터플라이밸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규 설비투자뿐 아니라 노후 배관 교체와 정기보수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가스 누설과 비산배출 규제 강화, 수소 혼입 및 수소 전용 배관 검토, 고압·대구경 제품 수요 확대,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결합한 원격관리 기능 도입이 주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범용제품은 국내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심하고, 고사양 제품은 국제규격, 시험인증, 공급업체 등록 및 납품실적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 가스밸브 사업 기반으로 플랜트 및 신에너지용 밸브로 단계적 확장

동사는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가스안전 기능 강화와 고압·대구경 플랜트용 제품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소배관용과 초저온 볼밸브는 현재 주력사업이라기보다 기존 밀폐·용접·소재 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확장 분야에 해당한다. 동사의 사업은 도시가스·LPG 배관의 교체·정비 수요가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정유·석유화학·발전설비 투자와 고사양 제품의 반복수주 여부에 따라 추가 성장성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915.5	7.0	100.3	11.0	80.7	8.8	9.5	6.4	47.2	775	8,503	7.1	0.7
2024	912.6	-0.3	79.6	8.7	71.0	7.8	7.8	5.4	38.4	682	9,081	10.8	0.8
2025	814.5	-10.8	-16.5	-2.0	-19.7	-2.4	-2.1	-1.5	36.5	-189	9,065	N/A	0.9

기업경쟁력

폭넓은 밸브 제품 포트폴리오	LPG용기용·나사식·플랜지식·매물용접형·버터플라이밸브를 아우르며 생활·도시가스 배관부터 정유·발전 플랜트까지 다양한 수요처에 대응
소재·제조·판매 연계 기반	소재 생산, 밸브 제조 및 유통 기능을 계열사와 연계해 제품개발부터 생산·공급까지 이어지는 사업운영 기반 보유
상용화 중심의 제품개발 역량	장기간 축적한 설계경험을 시제품 시험, 공정개선 및 양산으로 연결해 절연형·매물형·고압 플랜트용 제품을 실제 판매제품으로 전환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시트 면압 제어 및 다중 밀폐기술	볼과 시트의 접촉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중 시트·다중 패킹을 적용하는 기술로, 나사식·플랜지식·매물용접형 볼밸브의 누설방지에 활용
완전용접형·트리니언 볼밸브 설계기술	용접구조로 외부 누설경로를 줄이고 고압에서도 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기술로, 도시가스 매설배관과 고압·대구경 플랜트용 밸브에 적용
전기절연 및 가스안전 기술	배관의 누설전류를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가스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로, 전기절연볼밸브와 누설점검형 중간밸브 및 LPG용기용 차단밸브에 적용

시장경쟁력

도시가스·LPG 시장의 공급 기반	가스용 밸브의 인증, 대리점 유통망과 장기간의 공급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설치뿐 아니라 교체·정비 수요에 대응 가능
국내외 에너지 발주처 진입 기반	한국가스공사, 정유사, 발전사 및 해외 국영 에너지기업의 공급업체 등록 이력을 통해 플랜트 프로젝트 입찰과 견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확보
범용제품과 고사양 제품의 병행 대응력	안정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소형 가스밸브와 프로젝트형 고압·대구경 밸브를 함께 공급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일부 분산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밸브 기술은 가스·석유·화학 유체의 누설과 화재·과압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희소성(Rarity) 소구경 범용밸브부터 매물용접형·절연형·고압 대구경 플랜트용 밸브까지 자체 설계·생산하고 국내외 주요 발주처의 인증과 공급자격을 함께 확보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모방가능성(Imitability) 시트 면압 제어, 완전 용접 조립공정, 전기절연 및 복합 안전구조는 특허와 장기간 축적된 가공·용접·시험·품질관리 경험이 결합되어 단기간에 동일한 수준으로 재현하기 어렵다.	 조직(Organization) 다수의 생산거점과 연구소, 계열사의 소재·제품 보완체계, 대리점 및 산업 수요처 공급망을 통해 보유 기술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사업화할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다.
---	---	---	--

I. 기업 현황

도시가스용 범용 밸브 기반 위에 플랜트·발전·수소 인프라용 고사양 제품 확대 추진 중

동사는 나사식·플랜지식·매몰용접형·절연·LPG용기용 밸브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석유화학, 정유, 발전 및 일반 산업용 배관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약 500종의 밸브를 자체 가공·조립하며, 전국 약 350개 대리점과 도시가스 배관업체, LPG 충전·제조업체, 산업체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주력인 가스·산업용 볼밸브에 화성케이비밸브의 버터플라이밸브와 에이치에스메탈의 비철금속 사업이 보완하는 구조이며, 최근에는 S-OIL과 국내 발전사 공급자격 확보, 수소밸브 사업목적 추가를 통해 정유·발전·수소 인프라용 고사양 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배관 내 유체의 공급·차단 및 흐름 제어에 필요한 밸브를 제조·판매하며, 2000년 3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초기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하였고 나사식 볼밸브, 플랜지식 볼밸브, 매몰용접형 볼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등으로 제품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6년 3월 말 기준 각각 비철금속 회수·유통과 버터플라이밸브 제조를 담당하는 에이치에스메탈과 화성케이비밸브가 연결 종속회사이다.

주요 제품은 가정용·산업용 가스 배관에서 사용되는 나사식밸브, 도시가스·산업용 배관과 플랜트 설비에 적용되는 플랜지식밸브, 지하 가스관에 설치되는 매몰용접형 및 절연밸브, LPG 저장·운반 용기의 개폐를 담당하는 용기용 밸브이다. 주요 고객군은 전국 약 350개 대리점, 33개 도시가스사 관련 배관업체, LPG 충전소 및 제조업체, 석유화학·정유·발전·플랜트 관련 기업으로 구분된다. 2025년 S-OIL 공급업체 등록과 국내 5대 발전사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을 완료한 점은 기존 생활·도시가스용 밸브 중심의 고객 기반을 정유·발전 플랜트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출은 미국, 베트남, 러시아 및 일부 중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다.

생산은 대구 본사 및 경산 2·3·5공장, 김해 4공장과 종속회사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동사는 황동봉, 스테인리스 주물, 구상흑연주철 주물 등 주요 소재를 외부에서 조달한 뒤 밸브 전용 가공기, 선반, 조립 및 시험설비를 활용해 가공·조립·검사를 수행한다. 본사와 계열사를 포함한 복수의 생산거점을 운영하면서 약 500종의 밸브 제품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다양한 배관 규격과 사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장기간 축적된

가스용 밸브 설계·가공·누설시험 경험, 전국 대리점 및 도시가스 공급망에 기반한 유통 접근성으로 요약된다. 향후에는 기존 도시가스·산업용 밸브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유·발전 플랜트용 고사양 제품, 수소 혼입 및 수소 전용 배관에 대응하는 밸브의 개발·인증과 고객사 승인을 통해 성장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87.04	법인 설립
2000.03	코스닥 시장 상장
2001.11	신기술실용화 대통령표창 수상
2016.09	TR CU 032 러시아 인증서 획득
2017.04	이란국영가스공사 "NIGC" 벤더 등록
2017.08	쿠웨이트 국영석유사 "KOC" 벤더 등록
2021.07	한국가스공사 "KOGAS" 벤더 등록
2021.11	제13회 대한민국 환경·에너지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종합대상 수상
2022.05	케이비밸브(화성케이비밸브) 인수
2025.12	5대 발전사 기자재공급 유자격 등록

자료: 동사 회사소개서(2026.04),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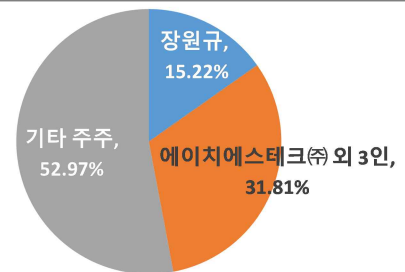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6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장원규로, 전체 발행주식(10,410,400주) 중 1,584,508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15.2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에이치에스테크(주) 외 3인의 특수관계자가 3,311,709주(31.81%)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47.03%이다. 한편, 나머지 5,514,183주(52.97%)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구조는 최대주주 측의 경영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주주 비중이 병존하는 형태이다. 최대주주 일가의 장기 경영과 기술·영업 네트워크 유지에는 유리하지만, 기타 주주 보유비중이 과반을 넘는 만큼 배당, 자본정책, 이사회 독립성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투자계획과 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화 일정, 주주환원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지배구조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장원규	1,584,508	15.22%	최대주주
에이치에스테크(주) 외 3인	3,311,709	31.81%	특수관계인
기타 주주	5,514,183	52.97%	
합계	10,410,400	100.00%	



자료: 동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사업은 화성밸브의 배관용 밸브 제조·판매를 핵심으로 하고, 화성케이비밸브의 버터플라이밸브 사업과 에이치에스테크의 비철금속 수집·판매 사업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이다. 핵심 제품군 가운데 플랜지식 밸브는 볼트 체결 방식으로 배관과 연결되는 제품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석유화학·정유설비, 발전소 및 일반 산업용 배관에 사용된다. 비교적 큰 구경과 높은 압력·온도 조건에 대응해야 하므로 몸체 소재, 밀봉구조, 가공정밀도 및 내압·기밀시험이 제품 신뢰성을 좌우한다.

나사식밸브는 비교적 소구경 배관에 나사 체결 방식으로 설치되고, 도시가스·건축설비·상업시설 및 일반 산업배관에 폭넓게 적용된다. 규격화된 제품의 반복 판매 비중이 높고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가능해 플랜지식 제품보다 분산된 고객 기반을 형성한다. LPG용기용 밸브는 LPG 저장용기와 충전설비의 가스 공급 및 차단에 사용되며, 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제품 특성상 기밀성, 반복 작동 내구성 및 법정검사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

매몰용접형 및 절연밸브는 지하에 매설되는 도시가스 배관의 차단과 전기적 부식 방지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매몰 환경에서는 유지보수 접근성이 낮으므로 장기 기밀성, 외부 부식 저항성, 용접부 신뢰성 및 작동 안정성이 요구된다. 동사는 전기절연볼밸브와 매몰용접형 밸브 분야에서 특허와 생산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해당 제품은 도시가스 배관 신설뿐 아니라 노후 배관 교체·보수 수요와도 연계된다.

버터플라이밸브는 디스크 회전을 통해 유체 흐름을 제어하고, 대구경 배관에서 상대적으로 경량·소형 구조를 구현할 수 있어 수처리, 산업용 유틸리티, 발전·플랜트 설비 등에 적용된다. 화성케이비밸브를 인수한 것은 기존 볼밸브 중심의 제품구조를 대구경 및 범용 산업배관 제품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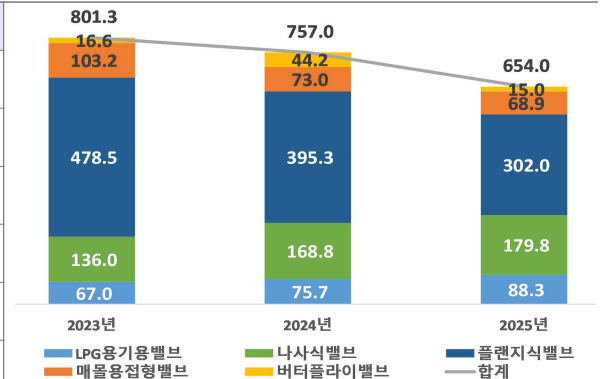
성장 사업으로 수소밸브와 정유·발전 플랜트용 기자재가 있다. 동사는 2024년 정관에 수소밸브 제조·판매를 추가했으며, 도시가스 배관용 볼밸브와 절연·매몰형 밸브 기술을 수소 혼입 및 수소 전용 배관으로 확장하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수소는 분자 크기가 작고 일부 금속재료의 취성 및 밀봉재 열화를 유발할 수 있어 기존 천연가스용 밸브보다 높은 누설관리와 소재 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소밸브 사업은 단순한 제품명 추가보다 소재·실링·반복 내구시험과 관련 인증 확보가 사업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포트폴리오는 규격형 가스밸브, 도시가스 배관용 특수밸브, 프로젝트·승인 기반의 산업·플랜트용 밸브가 결합된 구조로, 범용 제품의 유통 경쟁력을 유지하며 발전·정유·수소 인프라용 고사양 제품 비중을 높이고, 중속회사의 버터플라이밸브와 비철금속 사업을 생산·조달 측면에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표 3] 동사의 제품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LPG용기용밸브	67.0	8.3%	75.7	10.0%	88.3	13.5%
나사식밸브	136.0	17.0%	168.8	22.3%	179.8	27.5%
플랜지식밸브	478.5	59.7%	395.3	52.2%	302.0	46.2%
매몰용접형밸브	103.2	12.9%	73.0	9.7%	68.9	10.5%
버터플라이밸브	16.6	2.1%	44.2	5.8%	15.0	2.3%
제품 매출 합계	801.3	100.0%	757.0	100.0%	654.0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영업은 범용·반복수요 제품의 간접 유통과 도시가스·산업체 대상 직접영업이 병행되고 있다. 대리점 판매는 다수의 소규모 수요처에 대한 재고 대응과 납기 단축에 유리하며, 건축·설비·지역 가스공사 관련 수요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대리점 간 가격경쟁과 유통마진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표준화된 제품에서는 국내외 범용 제품과 가격 비교가 용이해 원가경쟁력이 중요하다. 동사는 제품 규격의 다양성, 즉시 납품 가능한 유통망, 장기간의 현장 적용 이력을 활용해 범용 제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가스사와 배관 시공업체 대상 영업은 제품시험, 공급사 등록, 현장 사용실적 및 품질보증이 중요하다. 매몰용접형·절연밸브는 교체가 어렵고 가스 누출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격보다 장기 기밀성, 용접부 품질, 규격 적합성 및 사후 대응능력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장에서는 기존 공급이력과 고객사 승인 경험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사가 축적한 도시가스 분야의 납품기반은 경쟁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

정유·발전·석유화학 플랜트 분야는 공급업체 등록과 프로젝트별 견적·승인 방식의 기술영업 비중이 높다. 설계조건에 따라 압력등급, 구경, 재질, 시트와 실링 구조가 달라지며, 발주처 또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자의 기술사양 검토와 벤더 승인이 선행된다. 동사는 한국가스공사, 해외 국영 석유·가스회사, S-OIL, 국내 발전사 공급자격을 확보하여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규격형 제품은 대리점 재고관리, 납기 및 품질 일관성을 강화하고, 플랜트용 제품은 고객사별 사양 대응, 국제규격 인증과 벤더 등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노후설비 교체수요를 기반으로 저누설·수소 대응·스마트화가 확산되는 산업용 밸브 시장

목표시장은 도시가스·LPG 배관, 정유·석유화학, 발전 및 일반 산업설비에 적용되는 차단용 볼밸브와 버터플라이밸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신규 설비투자뿐 아니라 노후 배관 교체와 정기보수 수요가 안정적인 시장 기반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가스 누설과 비산배출 규제 강화, 수소 혼입 및 수소 전용 배관 검토, 고압·대구경 제품 수요 확대,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결합한 원격관리 기능 도입이 주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범용제품은 국내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심하고, 고사양 제품은 국제규격, 시험인증, 공급업체 등록 및 납품실적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 산업용 차단밸브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도시가스·LPG·정유·석유화학·발전설비에 적용되는 산업용 차단밸브 시장으로, 가정·산업용 가스배관부터 도시가스 공급망, LPG 저장·충전설비, 정유·석유화학 공정, 발전 및 일반 산업설비까지 적용 범위가 넓다. 산업용 차단밸브는 공정 생산성을 직접 높이는 설비라기보다 유체 누출과 역류, 과도한 압력 및 배관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기지재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도시가스, LPG, 정유 및 석유화학 분야는 가연성·폭발성 유체를 취급하므로 밸브의 미세누설이나 작동불량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구매 과정에서 기밀성, 내압성, 반복 개폐 내구성, 소재의 적합성 및 장기간의 현장 적용실적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제품별 경쟁요소는 적용처와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구경 나사식밸브와 일반 플랜지식밸브는 규격화된 반복수요가 많아 가격, 납기, 재고운영 및 대리점 접근성이 중요하다. 반면 매몰용접형·절연밸브와 정유·발전용 플랜지식밸브는 설치 이후 교체가 어렵고 운전조건이 까다로워 설계기술, 소재, 가공정밀도와 내압·기밀시험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한다. 시장은 범용제품의 유통 경쟁과 고사양제품의 기술·승인 경쟁이 병존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수요는 신규 배관과 설비투자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교체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도시가스 배관과 LPG 설비는 안전점검 및 노후화에 따라 밸브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정유·석유화학 및 발전설비는 정기보수 기간에 마모와 부식이 확인된 밸브를 교체하거나 보수한다. 이에 따라 산업용 차단밸브 시장은 전방산업의 신규 투자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기존 설치기반에서 발생하는 반복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시장 진입장벽은 범용제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플랜트 및 가스배관용 밸브는 품질시스템, 시험설비, 소재 추적성, 납품실적과 공급업체 승인이 요구되며, 공급 이후에도 장기간 품질이력이 관리된다. 기존 공급업체는 축적된 현장실적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반복수주 가능성을 확보하는 반면, 신규 업체는 가격경쟁력만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국내 산업용 밸브 시장은 전통적인 건설·가스·플랜트 수요를 기반으로 발전·수처리·수소 등으로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하여 국내 산업용 밸브 시장은 2023년 4조 8,967억 원에서 연평균 7.6%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7조 5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볼 및 플러그 밸브 시장은 2023년 6,010억 원에서 연평균 12.6%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1조 897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그림 1] 볼 밸브 및 플러그 밸브의 구조



[볼 밸브]

회전식 구형 개폐체로 빠른 개폐 가능, 구동 토크가 작고 밀폐성 우수



[플러그 밸브]

원통형/원추형 회전 플러그를 이용한 개폐 구조로, 회전각이 짧아 빠른 작동 가능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도시가스 배관은 신규 보급 중심에서 기존 배관의 안전관리와 교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망이 성숙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신규 배관 확대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된 매설배관과 밸브의 부식·누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비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가스·정유설비의 비산배출과 미세누설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밸브의 스템과 패킹, 시트 및 연결부는 가스와 휘발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주요 지점으로, 환경·안전 기준 강화에 따라 누설 저감형 제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킹을 다중화하거나 시트의 접촉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반복 작동 이후에도 기밀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확대되고 있다. 저누설 밸브는 환경규제 대응뿐 아니라 유체 손실과 유지보수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발주처의 구매기준도 초기 가격보다 일정 기간의 누설 성능과 정비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수소 혼입 및 수소 전용 배관에 대한 기술개발도 확대되고 있다.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해 일정 비율의 수소를 혼합하거나 별도의 수소배관을 구축하려는 검토가 진행되면서 밸브의 소재와 밀봉구조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수소는 분자 크기가 작아 패킹과 시트의 미세한 틈을 통해 누출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금속의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천연가스용 밸브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소용 밸브에서는 소재 적합성, 실링재의 투과성, 스템부 누설, 반복 개폐에 따른 기밀성 및 고압조건에서의 구조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산업용 밸브의 자동화와 원격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발전소와 정유·석유화학 설비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구간이 많아 전동·공압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원격 개폐가 확대되고 있다. 밸브 위치, 개도율과 작동토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오작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공정의 비상정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스마트화는 제어밸브뿐 아니라 기존 차단밸브에도 점차 적용되고 있다. 액추에이터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결합하면 작동횟수, 토크 변화와 이상진동을 분석해 정비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수동형 밸브는 구조 단순성과 낮은 유지비가 장점이므로 모든 제품이 자동화되기보다는 발전·정유와 주요 가스배관 등 안전성과 운영효율이 중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도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동사의 목표시장은 도시가스 배관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요, 정유·발전설비의 정기보수, 저누설 규제 및 수소배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볼밸브와 매몰용접형·절연밸브의 납품기반, 대리점 유통망 및 플랜트 공급업체 등록을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저누설 성능과 수소 적합성 검증, 고압·대구경 제품 및 액추에이터 연계 역량을 강화해 범용제품 중심의 경쟁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국내 산업용 밸브 시장

(단위 : 억 원)

[그림 3] 국내 볼 및 플러그 밸브 시장

(단위 : 억 원)



자료: TDB 시장정보,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정밀 밀폐·완전용접·복합 안전기술을 기반으로 도시가스부터 고압 플랜트까지 대응

동사는 볼과 시트의 접촉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다중 밀폐구조를 적용해 기밀성과 작동성을 높이는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용접형·매몰형 및 고압·대구경 볼밸브를 설계·제조하고 있다. 트러니언 지지, 잔류압력 배출, 화재안전, 정전기·스텝 이탈 방지와 전기절연 기능을 결합해 도시가스부터 정유·석유화학·발전설비까지 다양한 배관환경에 대응하며, 연구개발은 가스안전 제품 고도화, 플랜트용 고사양 밸브 및 수소·초저온 제품 개발, 시뮬레이션과 시험을 통한 설계·공정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면압 제어, 이중 밀폐, 매몰용접, 유지보수 및 누설점검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SO-API-CE-KS 등 인증과 국내외 에너지기업 벤더 등록을 통해 가스·플랜트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가스·석유·화학 및 발전설비의 배관에 사용되는 볼밸브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제조하는 역량에 기반한다. 핵심은 밸브가 오랫동안 사용되더라도 유체가 새지 않고, 높은 압력에서도 원활하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구조와 소재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형 가스밸브부터 도시가스용 매몰밸브, 각종 설비용 대형·고압 밸브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핵심기술로 볼과 시트가 맞닿는 힘을 적절하게 조절해 누설을 막는 밀폐기술이 있다. 접촉력이 약하면 유체가 새고, 너무 강하면 밸브를 열고 닫기 어려워지거나 부품 마모가 빨라질 수 있다. 동사는 시트 스프링과 유체압력을 활용해 저압에서는 스프링 하중으로 기밀성을 확보하고, 압력이 높아지면 유체압력이 시트를 볼 방향으로 밀어 밀폐력을 보강하도록 설계하여 밸브 내부와 스텝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설을 줄이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와 LPG처럼 작은 누설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관에서 중요한 기술이다.

완전용접형·매몰형 볼밸브 기술은 지하배관과 장기간 유지보수가 어려운 설비에 적합한 기술이다. 밸브 몸체와 연결부를 용접해 하나의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볼트와 개스킷으로 연결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용접 과정에서 밸브 내부가 변형되지 않도록 전용 조립장치를 활용해 볼과 시트의 위치와 밀폐상태를 일정하게 관리하여 제품의 기밀성과 작동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고압·대구경 밸브에는 높은 압력에서도 볼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트러니언 지지구조와 여러 안전기능을 적용한다. 밸브 양쪽의 유체를 동시에 차단하고 내부에 남은 압력을 빼낼 수 있으며, 내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경우 이를 자동으로 해소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화재로 밀봉재가 손상되더라도 금속 부위가 추가적인 밀폐 역할을 수행하고, 정전기와 스텝 이탈을 방지하는 구조도 적용된다. 이러한 기술은 정유·가스·발전설비처럼 높은 압력과 가연성 유체를 다루는 환경에서 밸브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전기절연볼밸브는 유체 차단기능과 배관의 부식방지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제품이다. 금속배관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면 부식이 빨라질 수 있는데, 동사는 밸브 내부에 절연재를 적용해 배관 사이의 전류 흐름을 차단하도록 설계하였다. 기존처럼 별도의 절연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를 줄일 수 있어 도시가스와 LNG 배관의 시공 편의성과 장기 안전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밸브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몸체와 밀봉부의 소재를 다르게 적용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일반 가스·급수배관에는 기밀성과 조작성이 우수한 연질소재를 사용하고, 고온·고압 또는 마모가 심한 환경에는 금속시트와 내마모 표면처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볼밸브 구조를 일반 배관부터 산업 플랜트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1994년부터 기업부설 밸브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며 제품설계, 시험·검사, 설계자료 분석, 설계검증, 제조공정 개발 및 양산 적용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기초연구보다는 고객사양과 현장 안전요구를 제품구조와 제조공정에 반영하는 상용화 중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개발은 가스용 밸브의 안전성과 적용범위를 높이는 제품개량, 도시가스·플랜트용 고사양 볼밸브 개발, 설계검증과 생산공정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단기능형 용기용 밸브, 가스누설 점검형 중간밸브, 자동소화기용 밸브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가스 유출을 방지하고 사용 편의성을 개선했으며, 나사식·플랜지식 제품의 소재·압력등급·시트구조를 다변화해 적용 유체를 확대하였다. 또한 매몰용접형, 탑엔트리형, 단조 및 주강 플랜지형 볼밸브를 개발해 도시가스 배관과 정유·석유화학·발전설비의 고온·고압 조건에 대응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시제품 시험을 통해 강도·유동·기밀성능을 검증하며, 완전용접형 제품에는 시트면압 기준 조립지그를 적용해 용접 후에도 기밀성과 작동토크의 편차를 줄이는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은 수소배관용과 초저온 볼밸브로 확대되고 있다. 수소용 제품은 수소취성에 대한 저항성을 고려한 스테인리스계 소재와 오링 등 밀봉부품의 적합성을 검토해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천연가스용 제품보다 높은 수준의 미세누설 관리가 요구된다. 초저온 제품은 LNG 등 저온 유체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몸체·스템·시트의 수축률 차이와 밀폐성 저하를 제어하는 소재·구조설계가 핵심이다. 다만 이들 제품이 본격적인 사업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장기 내구시험, 수요처별 실증, 관련 규격 인증과 납품실적의 축적이 필요하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지식재산권은 볼밸브의 핵심 성능과 생산현장에 직접 연결된 구조·공정기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리 범위는 시트 접촉 면압 제어, 이중 밀폐, 매몰용접 구조, 잔류압력 배출, 현장 유지보수, 가스누설 점검 및 조립공정 안정화 기술을 포함한다. 이는 지식재산 전략의 초점이 제품 외관이나 단순 형상보다 기밀성, 안전성, 유지관리성과 생산품질을 좌우하는 기능적 요소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볼밸브의 밀폐성, 유지보수성, 생산 안정성과 가스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접촉 면압 조절형, 이중 실링 및 이중 시트 볼밸브 특허를 통해 볼과 시트의 접촉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밀폐부 손상 시에도 추가적인 차단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은 중국과 미국에도 등록되어 있다. 또한 매몰용접형 볼밸브, 벤트밸브 일체형 밸브체, 탑엔트리 볼밸브 및 용접형 볼밸브 조립지그 관련 권리를 통해 지하배관의 누설 방지, 잔류압력 배출, 현장 정비성과 양산 품질을 보호하고 있다. 가스안전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누설점검형 중간밸브와 LPG·고압가스 용기용 차단밸브 특허를 확보해 누설 확인, 과류 차단 및 오조작 방지기능까지 권리화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ISO 9001 및 ISO 14001을 기반으로 설계검토, 원재료 추적, 공정검사, 내압·기밀시험과 출하검사를 연계한 품질·환경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제품 측면에서는 API 6D와 API 607·6FA 화재시험, CE, TR CU 032 및 EN 10204 3.1 등 플랜트·해외시장 대응 인증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KS B 2308·KS B 6212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위생안전기준 및 공인시험성적서를 통해 가스·급수·냉온수용 제품의 시장진입 요건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쿠웨이트·이란 국영 에너지기업, S-OIL 및 국내 발전사 공급업체 등록을 확보해 정유·가스·발전 분야의 입찰 참여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는 개별 인증의 최신 유효성 관리와 실제 납품실적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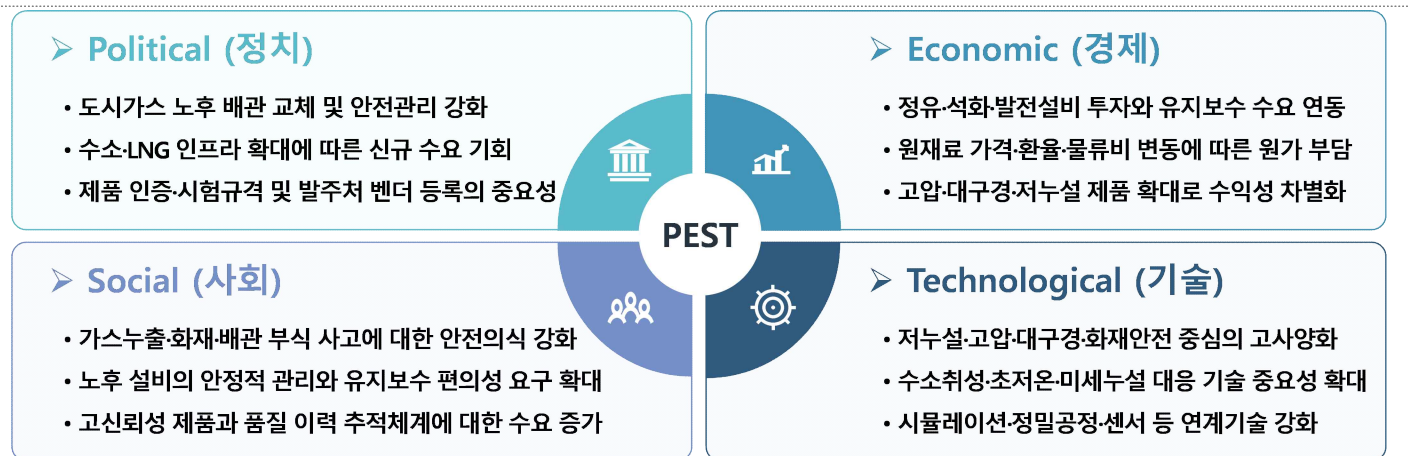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관리 강화, 노후 인프라 교체, 수소 혼입·전용 배관 실증 및 발전·에너지 설비 투자정책은 산업용 밸브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가스·압력설비는 KS,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API 및 화재안전시험 등 다층적인 규격과 승인이 요구되므로, 인증 유지와 발주처별 공급업체 등록 여부가 시장 진입과 수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소·LNG 등 신규 에너지 인프라가 확대될수록 제품별 안전기준과 시험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규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증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동사의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 교체, 정유·석유화학 및 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신규 투자에 영향을 받으며, 범용 밸브 시장에서는 국내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장·스테인리스·황동 등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동은 제조원가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고압·대구경·저누설 제품 비중 확대와 반복적인 교체·정비 수요 확보는 경기변동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환율과 물류비, 현지 인증비용 및 납기 지연 가능성도 수익성과 수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스누출, 화재 및 배관 부식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밸브의 기밀성, 내화성, 오조작 방지 및 유지보수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노후 도시가스·산업설비의 안전한 관리와 작업자의 정비 부담 축소가 중요해짐에 따라 완전용접형, 누설점검형, 탭엔트리형 및 전기절연밸브와 같이 안전성과 현장 편의성을 함께 제공하는 제품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과 발주처의 책임이 확대되는 점도 고신뢰성 제품과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다.

산업용 밸브 기술은 단순 개폐기능에서 저누설·고압·대구경·화재안전·원격제어 기능을 결합한 고사양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수소와 LNG 등 신규 에너지 배관에서는 수소취성, 극저온 수축 및 미세누설에 대응하는 소재·밀폐기술이 요구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정밀 조립공정 및 센서·액추에이터 연계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기존 볼밸브 설계·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신에너지용 소재 검증, 장기 내구시험 및 스마트 밸브 기능을 강화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외형은 축소되었으나, 낮은 부채비율 기반의 재무안정성 유지

동사의 연결 기준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915.5억 원, 2024년 912.6억 원, 2025년 814.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1분기에는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플랜지식 밸브와 버터플라이밸브 매출 감소,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으로 2025년 영업손실 16.5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 7.9억 원으로 흑자로 회복하였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2025년 기준 차입 부담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충분한 유동성 및 자본완충력으로 핵심 재무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 주력 제품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나사식 및 LPG용기용 밸브 매출 확대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915.5억 원, 2024년 912.6억 원, 2025년 814.5억 원으로, 2025년에는 플랜지식 밸브 및 매몰용접형 밸브 판매 감소의 영향으로 외형이 축소되었다.

품목별 매출을 보면, [LPG용기용 밸브]는 2023년 67.0억 원에서 2024년 75.7억 원, 2025년 88.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나사식 밸브]도 같은 기간 136.0억 원에서 168.8억 원, 179.8억 원으로 확대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최대 매출 품목인 [플랜지식 밸브]는 2023년 478.5억 원에서 2024년 395.3억 원, 2025년 302.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여 전체 매출 축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매몰용접형 밸브] 역시 103.2억 원에서 73.0억 원, 68.9억 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버터플라이밸브]는 2023년 16.6억 원, 2024년 44.2억 원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후, 2025년 15.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기타 [상품 외] 매출은 114.2억 원에서 155.6억 원, 160.5억 원으로 증가하며 외형 감소를 일부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매출 구조는 플랜지식 밸브 의존도가 낮아지고 나사식 밸브, LPG용기용 밸브 및 기타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88.7억 원 대비 6.0% 증가하였다. 동사는 주력 제품의 매출 감소로 2025년 외형이 축소되었으나, 나사식 밸브와 LPG용기용 밸브를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력 제품의 판매 회복 여부가 매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외형 축소 및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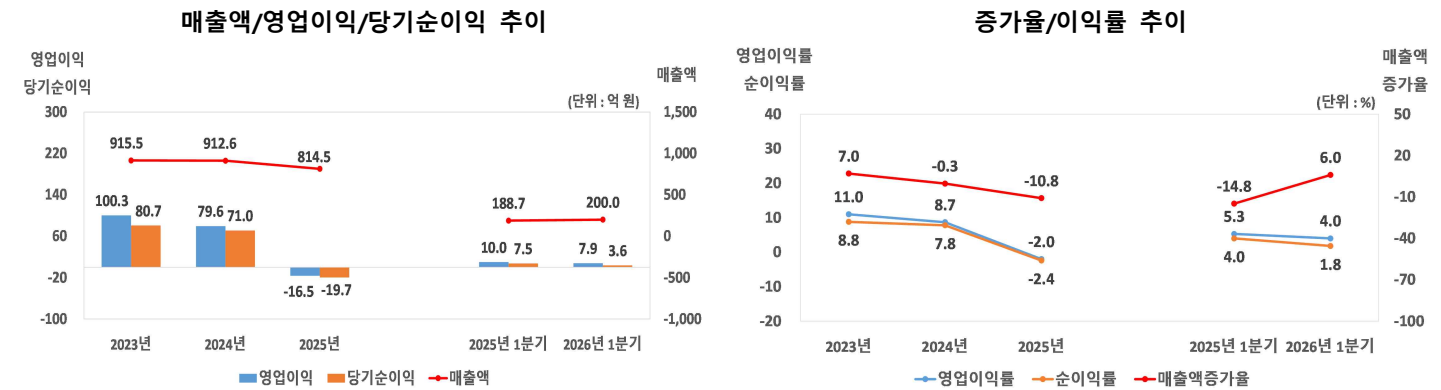
동사의 3개년 영업이익은 2023년 100.3억 원, 2024년 79.6억 원을 기록한 후, 2025년에는 -16.5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다. 영업이익률 역시 2023년 11.0%, 2024년 8.7%에서 2025년 -2.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매출 감소와 함께 매출총이익이 크게 축소된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속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78.7%, 2024년 81.3%, 2025년 90.1%로 2025년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판관비율의 경우 2023년 10.4%, 2024년 10.0%로 감소 후, 2025년 11.9%로 소폭 증가하였다. 2025년에는 대손상각비, 판매보증비 등의 판관비가 늘었으며, 경상연구개발비 역시 5.5억 원 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3년 80.7억 원, 2024년 71.0억 원에서 2025년 -19.7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다. 영업손실 전환과 함께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의 기타비용이 발생하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 7.9억 원, 당기순이익 3.6억 원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원재료비 상승과 비용 부담으로 이익률은 변동이 있었으며 향후 매출 회복이 원가율 안정과 판매비 효율화로 연결된다면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건조한 자본구조와 안정적인 재무구조

동사의 자산총계는 2023년 1,303.3억 원, 2024년 1,308.5억 원, 2025년 1,287.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유동자산은 808.0억 원으로, 비유동자산 중에서는 유형자산이 432.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설비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비율은 2023년 316.6%, 2024년 373.3%, 2025년 306.4%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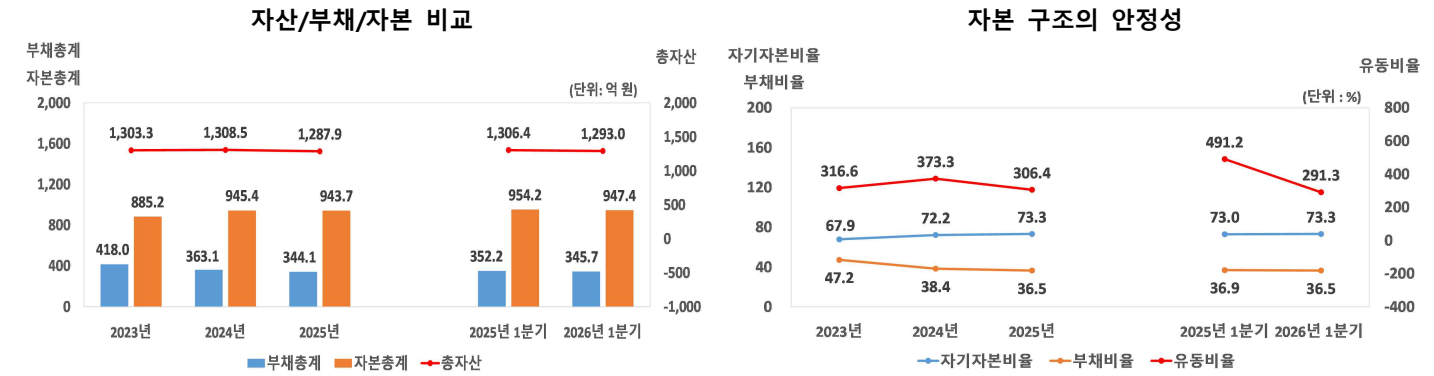
동사의 3년간 부채총계는 2023년 418.0억 원, 2024년 363.1억 원, 2025년 344.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부채비율은 2023년 47.2%, 2024년 38.4%, 2025년 36.5%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총차입금은 255.6억 원으로, 이 중 단기차입금이 증가하여 차입구조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자본총계는 2023년 885.2억 원, 2024년 945.4억 원, 2025년 943.7억 원으로, 자기자본비율 역시 2023년 67.9%, 2024년 72.2%, 2025년 73.3% 수준으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완충력이 유지되고 있다.

2026년 1분기 핵심 재무지표는 유동비율 291.3%, 부채비율 36.5%, 자기자본비율 73.3%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건조한 자본 규모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무기반을 바탕으로 차입금 관리와 영업현금흐름 개선이 병행될 경우 재무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915.5	912.6	814.5	188.7	200.0
매출액증가율(%)	7.0	-0.3	-10.8	-14.8	6.0
영업이익	100.3	79.6	-16.5	10.0	7.9
영업이익률(%)	11.0	8.7	-2.0	5.3	4.0
순이익	80.7	71.0	-19.7	7.5	3.6
순이익률(%)	8.8	7.8	-2.4	4.0	1.8
부채총계	418.0	363.1	344.1	352.2	345.7
자본총계	885.2	945.4	943.7	954.2	947.4
총자산	1,303.3	1,308.5	1,287.9	1,306.4	1,293.0
유동비율(%)	316.6	373.3	306.4	491.2	291.3
부채비율(%)	47.2	38.4	36.5	36.9	36.5
자기자본비율(%)	67.9	72.2	73.3	73.0	73.3
영업현금흐름	117.8	40.7	-4.7	22.0	-4.5
투자현금흐름	-45.4	-13.7	39.0	-2.3	-39.1
재무현금흐름	-17.7	0.9	-7.0	-2.1	-2.6
기말현금	84.0	112.1	139.4	129.8	93.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주력제품인 플랜지식밸브 매출은 2023년 478.5억 원에서 2025년 302.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정유·석유화학, 발전 및 산업 플랜트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 발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주 시점과 납품 일정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2026년 매출은 360.0억 원으로 회복되며 전체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플랜트 수주 회복이 완전한 정상화보다 부분적인 반등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LPG용기용밸브와 나사식밸브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LPG용기용밸브는 2025년 88.3억 원에서 2026년 92.0억 원으로, 나사식밸브는 같은 기간 179.8억 원에서 188.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제품은 가정·상업용 가스설비, 소규모 배관 및 교체 수요와 연계되어 대형 프로젝트형 제품보다 실적 변동성이 낮으며, 기본적인 매출 방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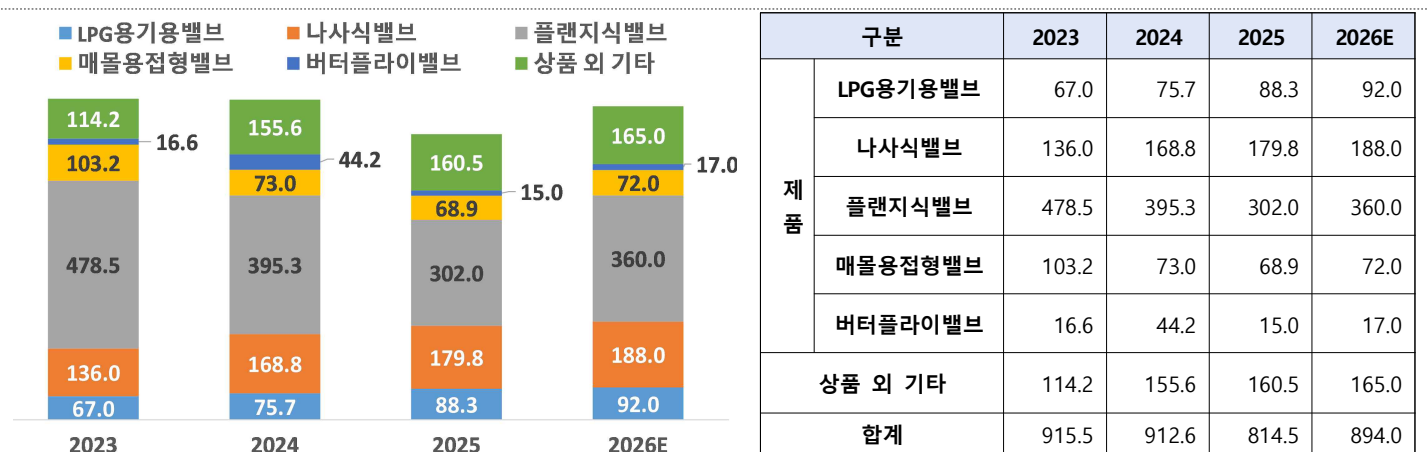
매몰용접형밸브는 도시가스 배관 신규 설치와 노후배관 교체 수요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2023년 이후 감소한 뒤 2026년에는 72.0억 원으로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완전용접형 구조와 높은 기밀성이라는 기술적 강점은 유지되고 있으나, 실적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와 교체사업 발주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버터플라이밸브는 2024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25년 감소했으며, 2026년에도 17.0억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전체 실적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 외 기타 매출은 2023년 114.2억 원에서 2026년 16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력 밸브 외 제품과 부자재, 유통 및 기타 거래가 전체 매출의 변동성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체 제조제품보다 상품 비중이 확대될 경우 매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품별 이익률과 사업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2026년 동사의 실적은 플랜지식밸브의 반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LPG용기용·나사식밸브의 안정적 증가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체 매출에서 플랜지식밸브가 약 40%를 차지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만큼 정유·석유화학·발전 분야의 투자와 프로젝트 수주 일정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주요 변수이다. 향후 실적의 추가적인 개선 여부는 플랜트용 고압·대구경 제품의 수주 확대,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 수요 확보, 수소·초저온 밸브의 상용화 및 안정적인 제품 믹스 구축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가스밸브 사업을 기반으로 고사양 플랜트 및 신에너지용 밸브로 단계적 확장 추진 중

동사는 LPG용기용·나사식·플랜지식·매몰용접형 밸브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가스안전 기능 강화와 고압·대구경 플랜트용 제품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소배관용과 초저온 볼밸브는 현재 주력사업이라기보다 기존 밀폐·용접·소재 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확장 분야로, 향후 실증·인증·수요처 승인과 납품실적 확보가 중요하다. 동사의 사업은 도시가스·LPG 배관의 교체·정비 수요가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가운데, 정유·석유화학·발전설비 투자와 고사양 제품의 반복수주 여부에 따라 추가 성장성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변동사항

동사는 기존 LPG용기용·나사식·플랜지식·매몰용접형 밸브 중심의 사업구조를 유지하며 제품의 적용 범위와 수요처를 넓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력 제품군이나 연결회사 구성은 변동되지 않았고, 에이치에스메탈의 소재 생산과 화성케이비밸브의 버터플라이밸브 사업을 연계한 기존 생산·판매체계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변화는 전면적인 사업구조 전환보다는 보유한 생산설비와 제품군을 활용해 도시가스, 일반 산업설비 및 플랜트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제품개발 측면에서는 기존 가스용 밸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사양 제품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가스누설 점검형 중간밸브와 차단기능형 용기용 밸브 등 안전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매몰용접형·탐엔트리형·단조 및 주강 플랜지형 볼밸브를 통해 도시가스와 산업 플랜트의 다양한 설치·운전 조건에 대응하고 있다. 완전용접형 제품의 시트면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조립기술과 고압·대구경용 안전구조도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소배관용과 초저온 볼밸브는 새롭게 사업 중심이 이동한 분야라기보다 기존 볼밸브 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제품 확장 영역으로 지속 개발되고 있다. 동사는 수소 환경에 적합한 소재와 밀봉부품을 검토해 시제품을 마련하고, LNG 등 저온 유체에 대응하는 제품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관련 제품은 실제 발주와 수요처별 성능검증, 인증 및 납품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현재 주력사업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향후 시장 형성에 대비한 기술적 준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장 접근 측면에서는 국내외 에너지·플랜트 발주처의 공급업체 등록과 제품 인증을 활용해 수주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도시가스 유통망과 대리점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정유사 및 발전사 등 산업 수요처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에너지기업의 벤더 등록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공급업체 등록은 입찰 참여를 위한 사전 조건에 가까우므로, 고사양 제품의 실제 공급실적과 반복수주를 축적하는 것이 향후 사업 확대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 향후 전망

동사의 사업은 도시가스·LPG 배관과 산업설비에서 발생하는 신규 설치 및 교체·정비 수요를 중심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밸브는 설비의 안전성과 직결되고 일정 기간 사용 후 점검이나 교체가 필요한 부품이므로,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가 제한되는 시기에도 노후 배관 개선과 정기보수에서 일정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나사식·LPG용기용 밸브와 전국적인 유통망은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의 발주 변동성을 일부 보완하는 안정적인 사업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플랜트 분야의 성장 여부는 정유·석유화학·발전설비의 투자와 유지보수 일정, 발주처 승인 및 납품실적 확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사는 플랜지식·완전용접형·트리니언형 제품과 화재안전·잔류압력 배출 등의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고압·대구경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다만 프로젝트형 사업은 발주 및 검수 시점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기존 해외업체와의 기술·가격 경쟁도 존재하므로 인증 보유만으로 수주 확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소와 LNG 관련 제품은 중장기적인 기회요인이지만 단기간 내 주력사업으로 성장 여부는 불확실하다. 수소배관에서는 미세누설과 소재 취성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고, 초저온 제품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밀폐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 내구시험, 현장 실증, 관련 규격 인증과 수요처 승인 과정이 필요하며, 동사의 기존 매몰용접·면압 제어·소재 적용기술이 실제 프로젝트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가 사업화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쟁력은 제품 종류의 단순한 확대보다 범용 가스밸브의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면서 고압·대구경 및 특수환경용 제품의 공급실적을 단계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 있다. 아울러 소재 생산부터 밸브 제조와 판매로 이어지는 계열사 간 연계, 품질·인증의 지속적인 관리, 생산공정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동사는 기존 가스·산업용 밸브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플랜트용 고사양 제품과 수소·초저온 밸브를 점진적인 성장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화성밸브(03961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07.1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화성밸브	X	X	X